



“기초 연구 확대 없이는 미래 대비 힘들어”

박영아 한나라당 국회의원

글 | 박방주 _ 중앙일보 과학전문기자 bpark@joongang.co.kr

박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을 때 그는 정부 연구비 중 기초 연구 투자 비율이 행정부의 입맛대로 수치로만 조정되고 있다며 흥분했다. 자신이 정리한 관련 데이터를 기자에게 보여주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지역구의원이면서도 과학에 대한 애착이 무척 강했다. 이 때문에 지역구와 과학계 현안을 챙기느라 바빴다.

Q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세요.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연구비 중 기초연구 투자 비율을 50%로 높이겠다고 공약을 했었어요.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 행정부가 그 비율을 어떻게 해서든지 높게 만들기 위해 수치를 멋대로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글썄 현재 기초연구 투자비율은 25%인데 그게 어느 새 37%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12%나 쯤 올랐어요. ‘기초연구’를 ‘기초원천’으로 바꿔 ‘원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투자 항목을 몽땅 합한 것이라는 겁니다. 기초연구 투자 비율을 눈 가리고 아웅하듯 해서 수치만 높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박 의원은 기초연구 투자 비율 수치만 높게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알아채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 자료를 취합했다고 한다.)

Q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국회에서 할일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연구개발 행태를 이제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지원할 게 많아요. 집중적으로 밀어야 할 분야로 지금은 핵융합과 우주를 개인적으로 꼽습니다.

Q 7월에 가졌던 한국연구재단법 제정 관련 공청회 후속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5년 동안 정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어요. 포퓰리즘으로 국가의 격이 너무 떨어졌잖아요. 통과되지 말았어야 할 행정수도 관련법이 표발을 의식해 통과되는 등 참 답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기초연구가 참 취약해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이유라고 봐요. 기초 연구를 확대하지 않고는 미래를 대비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박영아(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의원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에서 느닷없이(?) 정계에 뛰어들어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과학기술인 출신으로서 정계에서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또 과학계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박 의원은 공천 단계에서부터 화제를 불러왔다. 3선의원인 중진 맹형규 전 의원을 제치고 전략 공천을 따냈었다. 그가 대학입시를 볼 때는 전국 여학생 예비고사 수석을 하기도 해 재원으로 꼽혔다. 그가 살아온 여정이나 그 동안 물리학회 등에서 입심과 실천력 강하기로 유명했던 점을 보면 그의 정치 여정은 또 한 번의 화제를 몰고 올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한국연구재단이 설립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그 방향으로 큰 흐름이 잡혔어요. 공청회 때 나온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 잡는 쪽으로 의정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 중 하나가 의원 대체 입법으로 한국연구재단법을 만들어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낸 법과 병합 심리를 해 서로 조율하게 되지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법 중 이사회와 재단 대표의 분리는 통합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해요. 즉, 상근 이사장이 재단의 대표가 되는 것이지요. 또 연구재단의 특성상 공공기관의 예외조항에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Q 정부가 KAIST와 한국생명연구원을 통합하려고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기관의 통합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뤄진 것 같아요. 목적이 뭔지 모르겠고, 시너지 효과도 불분명해요. 두 기관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연구 기관을 봐왔지만 지원 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봤어도, 통째로 통합하는 것은 못 봤어요. 정부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명쾌하게 밝히고, 주변 의견을 들어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Q 과학 비즈니스벨트는 어떻게 보나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과학계와 충청 지역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단계에서 콘텐츠가 논의되다 지금은 중지된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큰일을 추진하려면 내용을 공개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가속기를 집어넣는다 만다 하는데 가속기만 해도 수천억 원짜리에서부터 수조 원대까지 다양하잖아요. 과연 한국의 실정에서 어떤 가속기가 필요한지 논의를 해야지요.

Q 교육부와 과기부의 통합 이후를 보는 소감은...

교육 현안에 과학기술이 매몰되고 있는 것을 보는 마음은 편치 않아요. 교육쪽의 현안이 오죽 많습니까.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도 현안을 약간 알까말까한 시점에서 물러난 데다 새 장관도 교육 쪽에만 계셨던 분으로 의욕같이 과학을 챙기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한국처럼 과학 기술력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나라로서는 큰 일이 아닐 수 없네요.

Q 고위 공직자 중 이공계 출신이 참 적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고위 공무원을 보면 이공계 출신을 만나기 어려워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는 60명의 연구원 중 11명만이 이

공계 출신이기도 해요.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의 구성이 이런 지경이니 안만하잖아요. 인문학과 이공계 마인드는 분리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공계와 인문학 소양을 겸비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Q 대학교수 생활을 뒤로 하고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나 역시 지금은 정치인이지만 이전까지는 정치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지난 1월 교육부와 과기부가 통합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기저기 정치인을 만나고 다녔지만 만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던 때입니다. 그 때 정치권에 내가 들어가면 교육과 과학기술 쪽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조정자 역할을 해온 경험을 살리면 정치인으로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다행히 정치권 입문에 성공했으니 한 번 뜻을 펴볼 생각입니다.

Q 정치인으로서 뜻을 펴려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일도 많을 텐데...

물론이지요. 정치권과 사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 내 '미래 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을 출범시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과 공동 대표를 맡았어요. 의정활동을 하려면 어떤 사안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야 합니다. 막상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 교수시절보다 더 바빠요. 이것저것 챙기고 공부할 게 많아졌어요.

Q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지요?

풍납토성 유적지 문제와 잠실 고밀도 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발 벗고 나서고 있어요. 송파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 있는데 각계의 도움이 조금만 더 있으면 상승효과가 클 겁니다. 이외에 지하철 3호선 연장, 지하철 9호선 2단계 조기 착공 현안도 하루 빨리 진척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㉔

박영아 의원 약력

- ▷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 ▷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부회장
- ▷ 이태 물리학연합회 여성물리실무그룹 위원장
- ▷ 세계물리연맹 제3차 세계여성물리대회 조직위원장
- ▷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 부위원장
- ▷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
- ▷ 한나라당 서울시당 공약개발위원장